

에이프로젠·비보존 '장외'서 펄펄 나네

'1조 기업' 에이프로젠, 유니콘 등재 '제2 셀트리온' 평가 속 성장 속도

'기대주' 비보존은 코스닥 제도전 진통제 '오피란제린' 3a상 발표 임박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된 에이프로젠은 '제2의 셀트리온'으로 평가받고 있는 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 개발 기업이다. 사진은 에이프로젠 오송공장. 사진제공 | 에이프로젠

최근 국내 비상장 바이오기업 두 곳이 이슈가 되고 있다. 바이오신약·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고 있는 '에이프로젠'과 한국 장외주식시장(K-OTC) 대장주인 '비보존'이다.

에이프로젠은 9월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B인사이트가 유니콘 기업으로 등재하면서 화제가 됐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11번째이자 생명공학 분야에서는 첫 번째다. 유니콘 기업이란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약 1조1720억 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하여 일컫는 말이다. 에이프로젠이 지난 5월 린드먼아시아인베스트먼트로부터 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면서 기업

가치 1조 원을 돌파한 것이 유니콘 기업에 등재된 배경이 됐다.

에이프로젠은 KAIST의 단백질 신약 연구 역량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항체공학 기술 역량을 중심 기반 기술로 2000년에 설립된 바이오 벤처기업이다.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레미케이드의 바이오시밀러 'GS071' 개발을 완료하고 2017년 9월 일본 후생성으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국내 기업으로는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

피스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했다. 허셉틴(유방암), 리톡산(혈액암) 등의 바이오시밀러도 개발 중이며, '제2의 셀트리온'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인수한 코스피 상장사 나라KIC(현 에이프로젠KIC)와의 합병을 통한 우회 상장을 추진 중인 에이프로젠은 올해 신한금융투자를 상장 주관사로 선정했다. 유니콘 기업 등재로 상장 기대감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008년 설립된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비보존은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VVZ-149)'의 미국 임상 3a상 결과를 앞두고 증시에 '비보존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8월 완료된 결과 답라인을 이달 20일 이후 공개할 예정이며, 내년에 엄지견막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3b상과 출시 전 안전성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적으로 2022년 시장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오피란제린은 혁신신약으로, 마약성 진통제의 대체를 목표로 개발된 비마약성 진통제다. 앞서 6건의 임상을 완료해 안전성과 내약성을 확인했으며, 지난해 10월 미

국 FDA의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바 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 문제를 해결하고, 2024년 420억 달러(약 49조 2240억 원) 규모로 전망되는 수술 후 통증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비보존은 기업공개(IPO) 주관사로 신한금융투자를 선정하고 다시 상장 준비에 돌입했다. 앞서 2019년 코스닥 시장 입성을 목표로 기술특례상장을 위한 기술성 평가를 진행했으나 지난 6월 기준 평가 등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장외주식시장(K-OTC)에서 전체 거래액 89%를 차지하며, 13일 기준 시가총액 1조8724억 원일 정도로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는 코스닥 상장사와 비교하면 같은 날 기준 시가총액 9위에 해당된다.

비보존 관계자는 "새롭게 주관사를 선정했으나, 상장 방식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비보존에 최적화된 시기와 방법을 검토, 가장 적합한 방향으로 선택해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정용운 기자 sadzoo@donga.com

매일유업, 독특한 창립 50년 사사 '매일50' 화제

(社史)

창업주 성공스토리 위주 벗어나 10년 단위 아카이브북 5권 발간 다양한 시각자료로 50년 꿰뚫어 '연대기'·주제별 '생태학' 등 이채

매일유업은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사(社史) '매일50'을 발간했다.

'매일50'은 창업주와 기업 활동을 성공 스토리로 엮는 일반적인 기업 사사와 달리 50년 역사를 10년씩 엮은 5권의 '매일 아카이브북'과 이 내용을 시대순으로 요약한 '연대기', 그리고 주제별로 요약한 '생태학' 등 총 7권의 총서로 만들어졌다.

'매일50'은 매일의 도전과 혁신의 역

사뿐 아니라 당시 시대 사회상황과 한국 낙농·유가공의 역사를 함께 가늠할 수 있도록, 10년 단위의 아카이브북 5권으로 엮는 시도를 통해 매일유업 50년의 생생한 역사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1600쪽에 가까운 '매일 아카이브'북 5권은 엄밀한 가이드라인과 서체, 색, 다양한 기호의 인텍스를 적용해 서로 다른 시대의 자료, 제목과 발문, 광고 등 다양한 성격의 시각자료는 물론 도표, 회고, 인터뷰, 유업 관련 용어 주석 등 다양한 성격의 글들을 각각의 성격에 맞게 담았다.

아카이브 북을 시대순으로 발췌한 요약본 '연대기'는 '매일 50'이 보존용 사사에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핸드북이다. 출간과 동시에 전사원에게



5월17일 전북 고창에 있는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에서 열린 '매일유업 창립 50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완 매일홀딩스 회장(오른쪽에서 네 번째), 김선희 매일유업 사장(가운데)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들이 사사총서 소개 퍼포먼스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매일유업

선물 겸 교육용으로 배포될 만큼 활용도가 높았다.

기업의 다양한 영역과 브랜드, 제품, 계열사 등의 지형과 생태를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별로 엮은 '생태학'도 기존

사사의 틀을 깬 신선한 시도다. 사사의 목적이 과거의 정리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그리기 위한 바탕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압축적으로 구체화해 완성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TV 프로그램·오늘의 운세

16일 (월)

채널A 02-2020-3100 KBS 02-781-1000 MBC 02-780-0015 SBS 02-2113-5000

재방송 등 시각장애인용 화면 해설방송

채널 A	KBS1	KBS2	MBC	SBS
6:00 특별기획 (아름다운 노화의 비밀, 탄력단백질) 7:00 뿌리생 8:00 행복의 아침 9:20 김진영의 토크쇼 10:50 뉴스라이브	5: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뉴스광장 7:50 안간극당 8:25 아침매일 9:30 뉴스 10:0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10:40 지구촌 뉴스 11:50 생활의 발견 스페셜	5:00 무한리플 셀러드 6:00 김서경의 세계 속으로 6:50 생활속 아침이 좋다 8:00 KBS아침 뉴스타임 9:00 일일연속극 꽃길만 걸어요 9:40 무한리플 셀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살림하는 남자들	5:00 UHD세상탐험 6:00 뉴스투데이(1, 2부) 7:50 일일드라마-나쁜 사람 8:30 생활속 오늘 아침 9:30 930뉴스 9:45 기본 좋은 날 10:45 UHD특선 드라마-W 12:00 12뉴스 12:20 최충우 1:20 열혈기초 동물교실2 1:50 2시 뉴스 외전	5:00 SBS특선 다큐멘터리 6:00 모닝와이드(1, 2, 3부) 8:35 아침연속극 맛 좋은 보쌈요리 9:10 좋은 아침 10:10 뉴스 10:30 살림하는 오늘 11:00 우리끼리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00 사건 상형실 1:20 역사 다시보기 천일야행 2:50 보검출제: 캠퍼스 뮤직 올림피아드 4:20 정치레스크 5:50 뉴스 톨10 7:30 뉴스A 8:40 어버뉴 해피&길길이 다시 신디 9:50 침묵의 열매들 11:20 톨문으로 들었소	12:00 뉴스12 1:00 네트즌도 기획-문화선 1:50 KBS재난생생방송 2:00 뉴스 2:10 남북의 창 2:50 전국노래자랑 4:00 시사선전 5:00 뉴스 5:30 동물왕국 6:00 6시 내고향 7:00 뉴스7 7:40 우리말 겨우기 8:30 일일연속극 꽃길만 걸어요 9:00 KBS뉴스9 10:00 기요무대 11:00 더 라이브 11:40 저널리즘 토크쇼 12:35 뉴스 12:45 이웃집 할머니	12:05 재보자랑 1: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1:50 무엇보다 물어보세요 3:00 뉴스타임 3:10 자몽부채상 위키2 3:30 TV유치원 4:00 무한리플 셀러드 5:00 영화가 좋다 6:00 KBS경제타임 6:30 2TV생생정보 7:50 일일드라마-우아한 모녀 8:30 글로벌24 8:55 육탐방의 문제들 10:00 개는 훌륭하다 11:20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 (백하서랑) 12:35 뉴스 12:45 이웃집 할머니	12:00 12뉴스 12:20 최충우 1:20 열혈기초 동물교실2 1:50 2시 뉴스 외전 3:20 뽀뽀모두야 놀자 스페셜 3:50 뽀뽀모두야 놀자 4:20 일일드라마-나쁜 사람 5:00 뉴스 5:25 만나네 생활 스페셜 6:35 생활속 오늘 저녁 7:00 손간초 7:30 생생한 아침 7:00 생생한 투데이	12:50 동상이몽2 나는 내 운명 2:00 뉴스 브리핑 4:00 생활의 달인 5:00 SBS오뉴스 6:00 손간초 6:30 생생한 아침 7:00 생생한 투데이 8:00 8뉴스 8:55 생활의 달인 9: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0:00 월화드라마-VIP 11:10 동상이몽2 나는 내 운명 12:30 나이트리전 11:00 스포츠 투데이

박경호의 운수 좋은 날 12월 16일(월) 음력: 11월 20일 문의: (02)812-1201, 도원학당

쥐	소	호랑이	토끼
행운색: 흰색	행운색: 적색	행운색: 검정	행운색: 적색
기회를 얻어 일을 성사시키는 운이다. 불운을 만회하고 걱정에서 해방된다.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난다. 하지만 자신의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펴면 불리하며 원망을 들을 수도 있다. 길방: 서	뜨겁기 쉬운 날이라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환경에 휩쓸려 무리하면 화근이 될 수 있다. 투자행위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좋다. 침착함을 잃지 말고 치밀한 계획 하에 일을 처리하라. 길방: 남	여성의 도움이 있다. 수입의 증대가 있다. 무리한 욕심을 부리면 만사가 불성취가 쉽다. 뭔가 파격적이고 개척적인 일을 해보고 싶다. 여성의 경우 남자로부터 금전피해를 조심하라. 길방: 북	스스로 일을 찾아서 움직여야 무엇인가 이루어진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자세로 임한다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것이다. 호화롭고 사치스런 생활을 바라는 욕망이 강할 때이다. 길방: 남
운	뱀	말	양
행운색: 흰색	행운색: 청색	행운색: 청색	행운색: 적색
지나친 연동은 삼가고 항상 신중 하라. 친구와의 이별, 새사람과의 교제가 생기기 직전에서는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의 기회를 얻는다. 하지만 문서상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길방: 서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활동하면서 번다. 변화의 시기로 잘나가면 사람은 위기로, 못나가면 사람은 찬사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유리한 조건을 얻는다. 길방: 동	작은 일은 되지만 큰일은 아작이다. 유혹에 빠지기 쉽다. 적당한 음주나 유희는 사업과 가정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곤경에 처한다. 미혼자는 혼담이 생겨 기분이 들뜬다. 길방: 동	음과 양의 기운이 통하는 운이다. 이성을 만나면 길하다. 직장은 승진의 기회가 생기고, 사업이나 예술인 등은 뜻밖의 명성을 얻는 기운이다. 시들었던 화초가 비를 만나는 운이다. 길방: 남
원숭이	닭	개	돼지
행운색: 검정	행운색: 노랑	행운색: 적색	행운색: 흰색
느긋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구직자는 직장을 얻으며, 사업자는 지인의 도움으로 거래실적이 좋아진다. 하지만 열심히 한다고 해도 실속은 없는 날이다. 앞서거나 서두르지 마라. 길방: 북	문제가 발생해도 지원자를 얻게 된다. 주변인의 조언을 참조하라. 잠재력 발휘의 날이고 금전에 대한 변동도 있다. 계획과 판단력이 뛰어난 주변인의 시선을 모으고 일의 결과가 좋다. 길방: 중앙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지나친 욕심은 기대하던 일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며, 언젠가 닦아내고 사업상의 손해를 야기한다. 격류를 견디어 내려면 굳센 용맹심을 갖고 나가야 한다. 길방: 남	가정의 일은 순조로우나 새로운 계획은 실패하기 쉽다. 현재의 번영은 하늘의 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전상 수입과 지출이 많아진다. 길방: 서

경제
15
2019년 12월 16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날씨와 생활

16일(월)		
서울 30/30	인천 20/30	수원 20/30
2/11	2/10	2/11
춘천 30/30	강릉 0/20	청주 20/20
0/8	5/14	2/13
대전 30/20	전주 20/20	광주 20/30
2/15	4/16	5/16
대구 10/20	울산 20/20	부산 20/30
1/14	3/15	8/16
창원 20/30	제주 20/30	지역 강수 확률 (안/오후)
4/13	10/18	날씨 최고기온

☀ 해돋이 07:40 해질 17:15 🌙 달돋이 21:24 달질 11:03

산 날씨			
북한산	-1/11	내장산	4/15
설악산	5/13	무등산	3/16
오대산	0/11	주왕산	-4/13
속리산	-1/13	지리산	3/15
계룡산	0/13	한라산	11/18

바다 날씨			
인천송도	2/10	안면도 꽃지	1/13
제주도	2/12	번산반도	3/15
경포대	5/14	거문도	4/14
속초	4/12	해운대	8/16
대전	1/12	제주도	12/17

미세먼지			
서울	27	충남	25
부산	16	충북	14
대구	33	경북	30
인천	25	경남	24
광주	20	제주	11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17일 서울경기	7/10	충청	6/12
18일 서울경기	1/5	충청	2/7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는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유료부수 2년 연속 1위

스포츠동아
대표전화 02-361-1610

발행인 이인철	편집부장 스포츠부장	좌혜경
편집인 이성준	엔터테인먼트부장	김도현
편집국장 연제호	경제부장	윤여수
광고국장 이승욱	뉴미디어전략팀장	김재범
인쇄 동아일보사	사진부장	양형모
		고종철

광고문의 02-361-1612 구독신청 1588-2020 FAX 02-361-1617
www.sportsdonga.com (우) 0373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29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월간)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지침을 준수합니다. 2008년 3월 24일 창간
구분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기사 의견 제보 및 독자 투고 02-361-1616 so@donga.com